

세계 식량 가격 곡물·육류 하락속 보합세...설탕 여전히 불안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120.4p 유지
대부분 전년 동월비 안정세...설탕 1년새 41% 상승

3개월 연속 하락세에 있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곡물과 육류는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연중 상승폭을 키웠던 설탕은 생산량 저하로 가격 불안이 계속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1월 세계식량가

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120.4포인트(p)를 기록했다. 지난 7월(124.1p)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가격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제품,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

성해 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1년 평균 125.7p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평균 143.7p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품목별로 등락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21년 3월(119.2p)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곡물(-3.0%)과 육류(-0.4%)는

전월 대비 하락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각각 -19.4%, -2.4%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인 유제품(3.4%), 유제품(2.2%)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9.8%, -23.2%로 비교적 큰 폭 하락했다.

반면 설탕은 한 달만에 상승(1.4%) 전환하며 161.4p로 지난 9월 역대 최고치(162.7p)에 근접, 가격 불안이 지속됐다.

설탕은 양대 수출국인 브라질과 태국에서 가뭄으로 인한 생산 저조와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 물류 정체와 미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격 강세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다만, 브라질에서 생산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향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FAO는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8억230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0.9%(2590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소비량은 28억1280만t으로 1.1%(3030만t)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면기자



너무 비싼 겨울 딸기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딸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딸기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딸기(특등급) 2kg는 지난해보다 38.8% 급등한 5만8035원에 거래됐다.

“산지의 신선함 식탁에” SSG닷컴, 굴·새조개·바닷장어 예약 판매

오늘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남해산 제철 수산물 선보여

SSG닷컴이 남해산 제철 해산물 예약 판매한다.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와 매입 역량을 바탕으로 산지의 신선함을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SSG닷컴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남해산 제철 수산물을 예약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준비한 품목은 ▲삼베제 굴 ▲자연산 새조개 ▲자연산 바닷장어 등 총 3가지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삼베제 굴은 종자를 개량해 크기가 일반적인 굴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크다. 전문 레

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격은 1.2kg에 1만9000원대다.

자연산 새조개는 먹기 좋게 손질돼 배송되고, 가격은 500g에 2만4000원대다.

바닷장어(700g, 2미)는 3만5000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구매는 쓱닷컴 이마트몰 상단의 ‘프리미엄 식품관’에서 가능하다. 15일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수도권 중심(네오센터 출발) ‘쓱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섭씨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냉장 배송 차량을 통해 문 앞까지 상온에 노출되지 않고 배송하는 콜드체인 물



류를 통해 신선하게 배송된다.

이슬비기자

‘하루 1~3시간’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이달부터 확 줄어든다

고용부, 1일부터 실업급여 산정기초 개정안 시행
그간 ‘하루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간주했으나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현상’에 규정 삭제
정부 “불합리 정비”...노동계 “취약계층 생계위협”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그간 실업급여 산출 시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전면 개선하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지난 8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관련 안전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손 본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일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해왔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하루 2시간씩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 규정을 적용해 실업급여 계산 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됐다. 일할 때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1998년부터 20여년 간 유지돼온 해당 규정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으로 정확히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낮아 그런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5392원으로, 기존 92만3520원에서 절반인 46만1760원으로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3시간 근로자는 23만원 삭감된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대로 4시간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가 대부분 저임금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매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당정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 개정 사항인 실업급여 손질에 앞서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착수했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임금보다 많은 역전현상, 반복수급, 고용보험기금 적자 등을 들어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명 ‘시럽급여’ 발인 논란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뉴스시

내년 수입차 세단 시장 ‘왕좌의 게임’



첫 달인 10월 758대를 팔았고, 지난달엔 1897대까지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기존 7세대 5시리즈 재고 처리와 연말 맞이 판촉 활동이 실적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젓차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대 5시리즈 재고 처리 작업을 마친 BMW 딜러사에선 신형 5시리즈 내연기관 모델에 대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65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전기차 모델인 i5는 최대 1550만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벤츠는 신형 E클래스(11세대)를 내년 1월 국내에 선보인다. 신형 E클래스는 2016년 10세대 E-클래스의 출시 이후 7년 만에 출시된 완전변경 모델로 올해 4월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E클래스 외관은 클래식한 라인과 모던한 디자인이 만나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 공간에는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편의사양이 대거 탑재돼 차량 내 완벽한 디지털화를 구현했다.

더 기능적이고 높은 학습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벤츠가 2025년경 선보일 전용 운영체제 MB.OS의 선행 버전도 탑재된다.

E클래스와 5시리즈 판매량은 내년 벤츠와 BMW 전체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두 차량 모두 브랜드 내에서 판매 비중이 가장 큰 모델이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모델의 풀체인지(완전변경) 주기가 공교롭게 겹쳤다”며 “신형 대 신형 동일한 조건에서 맞붙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두 차의 판매량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내년 수입 세단 시장의 왕좌를 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내년 초 대표 세단 제품군인 E클래스(11세대)를 본격 출시하면서 최대 경쟁 모델인 BMW 5시리즈(8세대)와 혈투를 벌일 전망이다.

두 모델은 올해도 나란히 수입차 판매 1위(E클래스)와 2위(5시리즈)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업계에선 사실상 올해 판매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벤츠가 내년 신형 출시를 확정하고 대폭 할인을 통해 재고 물량 소진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 먼저 등장한 것은 신형 5시리즈다. BMW는 앞서 지난 10월 5시리즈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특히 5시리즈 라인업 최초로 순수전기 모델인 i5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신형 5시리즈 판매는 순항하고 있다. 출시

코렐, 디즈니와 뭉쳤다...‘미키 빈티지컬렉션’ 12종 출시



주방용품 기업 코렐 브랜드의 테이블웨어 코렐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손잡고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컬래버

‘코렐 디즈니 미키 빈티지’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렐은 미키 마우스, 곰돌이 푸 등 디즈니 대표 캐릭터와의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을 출시해왔다. 코렐 디즈니 미키 빈티지 에디션은 새롭게 출시된 컬렉션이다. 미키 앤 프렌즈 캐릭터의 빈티지 아트웍이 새겨진 총 12종으로 출시됐다.

디즈니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도날드 덕 등의 캐릭터가 빈티지풍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흙, 나무 등 자연을 떠올리게 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얼시(Earthy)’ 컬러가 적용됐다.

코렐 디즈니 미키 빈티지 컬렉션은 이마트·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선욱기자